



세이프텍 인공지능 가스차단기 '디벨'

# 가스 새거나 지진 나면 알아서 밸브 잠가줘

“가스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가스밸브차단기에서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스안전용품 전문기업 세이프텍이 개발한 인공지능 가스차단기 디벨에서 나오는 소리다. 김인규 세이프텍 대표는 “시간이 되면 가스를 잠가주는 기능만 있는 기존 가스밸브차단기와 달리 가스 누출을 스스로 감지하고 지진이 발생해도 가스를 차단해 화재 사고를 예방해준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낮추고 편의성은 높이고 김 대표는 27년간 SK에너지에서 근무했다. 2010년 상무로 퇴사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했다. 전부다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의 자동가스밸브차단기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다.

사업 초기 주력 제품은 헤스타였다. 디벨처럼 타이머 기능 외에도 가스 누출과 화재 감지 기능을 갖췄다. 하지만 기대만큼 잘 나가지 않았다.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도시가스를 설치해주는 기사들이 문제였다. 가스밸브 안전장치 등도 기사들이 직접 추천해주는 데 이들이 헤스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타이머 기능만 갖춘 3만~5만원 대 저가 제품은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설치가 간단했는데 헤스타는 외부 전원을 쓰기 때문에 설치가 번거로워 기사들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디벨은 헤스타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이다. 외부전원에 연결할 필요 없이 AA



김인규 세이프텍 대표가 가스 누출 시 스스로 밸브를 잠가주는 인공지능 가스차단기 디벨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타이머 기능에 안전성 더해

배터리 4개로 작동해 설치 간편

제품 가격도 낮춰 11만~13만원대

빌트인 공략 ... 5년만대 판매 목표

사이즈 배터리 4개로 작동한다. 기존 모델에 없던 지진 감지 기능도 새로 추가했다. 외부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디스플레이 기능 등을 간소화하면서 제품 가격도 절반 가까이 낮췄다. 음성안내 기능

이 있는 제품은 13만9000원, 경고음만 오는 제품은 11만9000원이다. 김 대표는 “인터넷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전국 44개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출장을 나가 설치해준다”고 말했다.

◆연 80만 대 ... 빌트인 시장 노린다 세이프텍은 올해 초 디벨을 출시했다. 김 대표가 목표로 하는 연 판매 대수는 5만 대. 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빌트인 연소기(가스레인지)에는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며 “연간 신규 주택만 해도 35만 가구여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간 60만 가

구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며 빌트인 연소기를 설치한다고 했다. 신규 주택과 리모델링을 합치면 연간 빌트인연소기 80만 대가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일부만 가져와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만드는 곳은 세이프텍을 포함해 전국에 두 곳뿐”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텍은 디벨로 해외 시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오는 5월엔 인도 뭍마이 전시회, 6월엔 중국에서 열리는 전자쇼 CES 아시아에 나선다. 지난해 4월 국제특허 출원도 마쳤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매년 주거형 건물에서 1만200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다”며 “이 중 3000건 정도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일어나는데 디벨이 화재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세이프텍

설립	2015년 6월
위치	경기 부천
주요제품	디벨, 헤스타
특징	가스누출 및 지진 감지 기능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막오른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내달 추진사업단 발족

올해 정부 2000억원 이상 투자 스마트공장·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오는 4월 스마트산업단지추진사업단이 발족한다.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단공단)은 창원과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인 스마트산업추진사업단이 다음달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단에는 산단공,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 정부가 두 곳을 스마트산업단 선도산단으로 선정할 때 따른 후속 조치다.

스마트산단은 데이터 및 자원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창업과 신산업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데이터를 연결해 활용하면 스마트공장 보급 시 30%의 생산성 증가효과와 함께 원자재 공동 구매를 통해 약 30%의 원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에는 올해에만 국비 2000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추진 분야는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미래형 산업 등이다. 제조혁신 분야에선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 기업의 제조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조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이 센터는 특정 업체의 기계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설비 고장 가능성을 미리 파악한 뒤 기업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별 경우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정비할 수 있어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일을 막게 된다. 산단 내 유류자원과 공유 가능 서비스를 대상

## 미래형 산단 개념

규제 혁신	규제샌드박스 적용, 네거티브존 도입
신산업 테스트	유류공정을 창업공간으로 변모
ICT 인프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태양광 보급
	수소셔틀버스, 협동 물류로봇 보급
	지능형 환경 안전관제센터
	자율주행 및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구축

으로 공유경제 플랫폼도 구축한다.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은 기숙사, 오피스텔, 임대주택과 문화센터 공동어린이집, 체육관, 도서관 등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래형 산단 분야에선 후·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해 창업 활성화를 돕는다. 아울러 지능형 교차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차 플랫폼 및 지하배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카로등 등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2개 국가산단을 선도산단으로 선정할 때 이어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도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산단은 기계·전기전자 등의 주력 산업을 지능형 기계 등 첨단 업종으로 고도화할 수 있고 대학과 연구소가 몰려 있어 스마트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반월·시화산단은 1만8000개 부품 및 뿌리업체가 있는 중소기업 밀집 단지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이 몰려 있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황 이사장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어렵지만 스마트산단이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국제 금형 및 관련기전 12-16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환)이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4회 국제 금형 및 관련기전(Intermold Korea 2019)'을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하는 이 전시회에는 20개국 420개사(1700개 부스)가 참여한다. 국내외 금형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자동화·첨단화 등 산업 공정 혁신 트렌드를 반영,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유망 바이어 50여 개사를 초청해 국내 금형업체와 수출상담회(13일)도 연다.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시회와 국제냉난방공조전 등 연관산업 전시회도 동시에 개최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세라믹연합회장에 황호연 월간세라믹스 회장 선임

세라믹 관련 산·학·연을 망라하는 단체인 한국세라믹연합회 회장으로 황호연 월간세라믹스 회장(80·사진)이 선임됐다. 한국세라믹연합회는 최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임후보한 황 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황 선임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라믹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세라믹 발전과 함께 회원들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 코엑스, 11월 13~15일 및 제5회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코엑스, 11월 13일), 제36회 한·일국제세라믹스세미나(일본 돗토리, 11월 20~22일) 개최 지원,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NCS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총회에서는 또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승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 임원 선임 등이 이뤄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일본 중소기업 '사업승계' 수단으로 떠오른 M&A

중기연구원 보고서  
친족·임직원 중 후계자 못찾아  
사업승계형 M&A 검토  
정부, 지원센터 통해 매수자 연결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계지원센터의 상담 건수와 사업 인계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이나 임직원

중 마땅한 후계자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검토하다 M&A를 출구로 찾게 시작했다는 얘기가. 2017년 일본 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후계자 후보가 없는 중소기업 중 소규모 법인의 19.3%, 중간 규모 법인의 36.7%가 “M&A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인계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사업인계지원센터는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사업 인계를 지원하는 단체다. M&A 절차 조연과 정보 제공,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연구원은 “M&A 중계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994건이던 상담 건수는 5년 만인 2017년 8526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갈

은 기간 사업 인계 건수 또한 17건에서 687건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센터가 지원한 사업 인계 중 70%가 (사내 직원이나 친족이 아니라) 제3자 사업 인계”라고 설명했다.

후계자가 없는 기업들이 M&A 때가 장 중시하는 사항은 ‘고용유지·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양도처로 업종이나 규모는 관계없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중기연구원은 일본 중소기업이 최근 사업승계형 M&A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종업원의 고용 유지·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스기촌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수 있고 스미노다 역시 현금 손에 쥘 수 있으며 스페업·청산보다 세금 부담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수익형부동산 개발 외길 20년 고종옥박사와 함께하는 『월세부자』 출간기념 저자특강 & 현장투어

월세부자

부동산 투자는 1톤의 짐이보다 1그램의 실천이 중요하다

- 다주택 중과배제 방법을 통해서 절세전략을 찾아라
-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절세전략을 찾아라
- 월세부자가 되는 방법을 수도권에서 찾아라
- 임팩트 있는 부동산을 수도권에서 찾아라
- 부동산투자 혼돈시대 고종옥박사와 해법찾기
- 미국 달러로 월세 받아 환차익까지 누리라

부동산투자 독수리 3형제 팩트! 임팩트! 퍼팩트!

월세부자

고종옥지음/360쪽/값18,000원

※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dodreamedia@naver.com

**주말 현장투어**---(참가비 1만원, 점심제공)

날짜	3/16 (토)	3/17 (일)
현장 투어	1부:10:00~11:00 고종옥박사 강의	2부:11:00~18:00 팽택현장 투어
강의 장소	선릉역 4번 출구 20m 파리바게트 지하1층 [다모임센터]	

**평일 현장투어**---(참가비 무,교통/점심 본인부담)

날짜	3/18 (월)	3/19 (화)	3/20 (수)	3/21 (목)	3/22 (금)
출발장소	해령 : 10시20분 수서역, 상행 : 16시40분 지제역				
팽택이동	지제역 승용차 대기				
기타	강의는 없으며 팽택으로 바로 출발				

-신청:전화 접수 후 참가비 1만원 입금  
-기업은행 고종옥 024-037800-02-066  
\* 주말투어는 고종옥박사 전체일정 동행

주관 : 팽택에서 월세부자 되기      특강 및 현장투어 접수 : 02-776-3023